

사진으로 보는 몽골의 자연 -제2부-

정 옥 식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6월 19일: 모래언덕을 오르다〉

07시에 기상 후 오아시스를 찾은 황오리, 사막
평, 노랑부리저어새 등을 관찰하고 짐 정리를 마
쳤다. 11시까지 집결하기로 하고 모두들 모래언덕
을 올랐다. 단숨에 오를 거란 예상과 달리 포기하
고픈 맘을 수십 번을 달래가며 백번도 더 쉬어
겨우 올랐다. 높이는 한 시간 이상을 걸려 오를
만큼 높았고 길이는 200km 이상 된다고 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니 300km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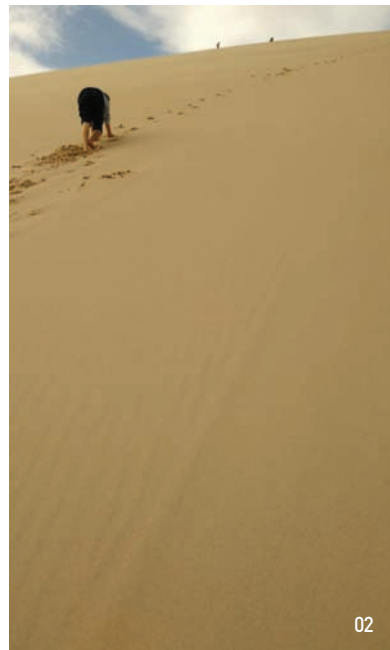


힘들게 오른 탓에 내려오기가 아쉬웠지만 콧구멍으로 모래를 쏟아 넣은 거친 바람 탓에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정상에서 내려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숙소를 찾아온 재때까치(국내에서는 10년에 2~3번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새)를 잠시 보고 난 후 ‘알’이 있다는 솔개 둥지를 보기 위해 잠시 모래언덕을 다시 올랐다. 이후 주변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를 둘러본 후 14시경 다시 금 북상을 위해 출발하였다. 북상의 목적지는 이가츠린초르 보호구역이다.

이동 중에 물을 가슴에 적시어 새끼에게 가는 사막뿔을 만났고, 큰물떼새와 향라머리검독수리, 쇠재두루미 가족, 초원수리 등을 관찰하였다. 다룽자드가드를 100여km 남짓 남겨두고 자동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언덕을 찾아 텐트를 쳤다. 이날 저녁은 바이르후(통역)를 줄라서 몽골식 칼국수로 해결했다. 몽골식 칼국수는 말린 소고기와 함께 칼국수를 넣어 만든 것으로 감자와 파를 곁들여 끓이면 우리 입맛에도 딱 맞는 음식이 된다. 신김치와 함께면 금상첨화다.

이번 탐사에서 쪽파, 대파, 양파는 구입하지 않고(물론 팔지도 않는다) 밭에서 조달했다. 믿기지 않지만 몽골 초지에 널려 있는 풀들은 대부분 쪽파다. 고르반사양에는 대파도 많았다. 심지어 양파도 자생한다. 바이르후의 요리가 마무리 될 때 즈음 사방에 널린 파를 뜯어 넣으면 된다. 몽골인들은 채소를 먹지 않기에 풀 뜯어 먹는 우리를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 하루는 널려있는 쪽파로 겉절이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날도 노을은 환상적이었고 습관처럼 노을을 바라보며 누구는 맥주를, 누구는 차를 마셨다. 이날도 달은 밝아서 은하수는 흐르지 않았다.



01 모래언덕 정상 부근

02 모래언덕의 경사는 우리를 4족 보행 동물로 만든다



03



04



05



06

- 03 쇠재두루미 어미와 새끼
- 04 사막꿩
- 05 몽골의 하늘과 맞닿은 땅
- 06 달빛 텐트, 밝은 달 때문에 은하수는 숨었다

〈6월 20일 : 하늘이 무너지다〉

이날 아침은 늦잠을 잤다. 아침을 먹고 텐트 정리와 함께 짐을 챙겨 09시30분에 차에 올랐다. 10시가 조금 넘어 다릉자드가드에 도착한 후 생수와 음식 재료들을 보충했다. 20리터 생수통에 부과된 보증금을 현장서 돌려받기 위해 2리터로 혹은 4리터 용기로 옮겨 닦았다. 지하수(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며 생수가 바닥날 경우 식수로도 사용)도 구입하고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하니 11시40분이 되었다. 13시경에 식당에 들러 울리야쉬, 은프텍호룩이라는 몽골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운전기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계획에 없던 사강소르워크를 둘러보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을 연상케하는 거대한 침식지형이었다. 멀리서는 암석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내려가 보니 단지 흙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마치 찰흙 위를 걷는 듯 한 느낌을 주었다. 연약한 지표면이 계속 쓸려나가면서 색을 달리하는 퇴적층이 깊게 드러나 있었다. 지표면은 현재와 가까운 시간에 만들어졌겠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만나는 지층은 과연 어느 시대의 것인지 궁금했다. 지금은 동시대에 드러나 있지만 꼭대기와 아래는 분명 몇 만 년 아니면 몇 십만 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을 것이다. 몽골의 중요한 자연유산일텐데 직접 발로 밟고 다니기가 미안했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미래 몽골세대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발치서 관람만 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16시에 관광을 마치고 다시 간식거리로 몇일전에 들렀던 식당에서 감발을 구입하고 복진을 계속하였다. 이날의 목적지가 이가츠린초르였지만 사강소르워크를 둘러본 탓에 중간에 야영을 하기로 했다. 20시경 적당한 곳을 찾아 텐트를 치고 급히 저녁을 먹었다. 서쪽 하늘 멀리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 빛이 요란했다. 잠자리 준비를 마친 일행에겐 마치 축제 전야제의 불꽃놀이처럼 좋은 볼거리가 되었다. ‘저 먹구름 아래엔 분명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곧 ‘뭔가 우리에게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바뀌었다.



07 서쪽하늘의 먹구름



08 4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가득했다

텐트를 다시금 고정하고, 배수로도 파고 플라이는 큰 돌을 찾아 단단히 고정 했다. 비를 피해 들어간 텐트 안은 통째로 날려 갈 것 같은 불안함에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었다. 텐트의 방수 기능은 임계치를 넘어선 듯 벽을 타고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 천지개벽의 순간인 듯했다. 두려워졌다. 더욱이 텐트 안에서는 바깥 상황을 볼 수가 없어 상황별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했고 또한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터라 텐트를 포기하기로 했다. 중요 장비만 챙겨 들고 차로 황급히 대피했다. 차창 밖은 수명을 다하기 전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하는 형광등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보였다가 어둠에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곧이어 차지붕을 수천 개의 망치가 달려들어 때리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우박이었다. 오백 원 동전만한 우박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6월 21일: 심장아 제발...〉

정말 뻘뻘하기 그지없는 하늘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간밤의 주사는 남의 일인냥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친구놈처럼 이날 아침은 구름 없이 맑았다. 이른 시간에 이가츠린초르에 도착하여 가급적 많은 시간을 탐사에 할애해야 하므로 바쁜 아침이었다. 텐트를 정리하고 출발하고 나니 10시가 조금 넘었다. 12시 즈음 만달고비에 도착하여 주유를 하고 다시 달렸다. 14시30분에 드디어 이가츠린초르 보호구역에 도착하였다. 이가츠린초르는 큰 바위 산이라는 뜻을 지닌 곳으로 작은 바위산이란 뜻의 바가가츠린초

르 보다 규모면에서도 크고 그 만큼 야생동물도 많이 서식한다고 한다. 이번 몽골 탐사에서 아직 늑대를 보지 못했기에 마지막 기회를 노려보기로 했다.

도착하자마자 관리인을 찾아갔지만 읍내(만달고비)에 볼 일이 있어 부재중이었다. 관리인의 아내로 짐작되는 아주머니의 말로는 최근 늑대의 개체수가 늘어 산양의 수가 줄었다고 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진 듯했다. 적당한 골짜기를 찾아 텐트를 치고 14시30분 경에 바이르후의 특제 칼국수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늑대와 여우를 보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저녁을 대신할 초코릿과 빵, 과자, 물을 여러 개 챙겨 놓고 출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건너편 바위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경계하며 응시하는 아이벡스산양 한 마리가 보였다. 급히 한 팀을 꾸려 물게 하고 나머지는 퇴로로 예상되는 고갯마루에서 산양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되던 퇴로 주변을 다 뒤져도, 긴 시간이 지나도 산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하던 퇴로를 우리가 도착하기 한 참전에 지나간 듯 했다. 그 시간 이후부터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었다. 나도 아들과 함께 그 다음 능선, 다음 골짜기로 목표를 정해 이동해가며 늑대와 여우가 은신해 있을 법한 곳 구석구석을 뒤지



09 이가츠린초르 전경

고 다녔다.

그렇게 몇 시간 지나 작은 골짜기 입구에서 늑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과 배설물을 볼 수 있었다. 산악지대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지친 몸과 맘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발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중천에 있던 해가 점점 낮아지고 산그늘이 길어질 때까지 늑대는 보이지 않았다. 20시 즈음 지친 아들을 캠프로 내려 보내고 난 뒤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실 해가 지면서부터 활동을 하는 늑대를 습성을 고려하자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된 셈이다.

제일 높은 능선을 오른 후 다시 짙은 그늘이 내린 골짜기로 내려가자 직전에 잠시 물을 먹기 위해 쉬는 찰라, 건너편 능선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 아이벡스산양이었다. 나를 인지한 후 쫓지 빠지게 도망치는 녀석을 보고는 내가 찾으려 다닐게 아니라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산그늘이 깔린 능선을 조금 내려와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앞 방향으로 두고 바위처럼 기다리기 시작했다. 내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좌우로 능선이 나뉘이기 때문에 능선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 앞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나를 보자면 역광인 탓에 하늘과 맞닿은 능선만 보일 것이고 공제선상 아래에 있는 나는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바람도 맞바람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유리했다.

20여분을 기다리니 정말 산양 한 마리가 내려온다. 찰라! 셔터를 눌렀다. 녀석은 흠칫 놀라며 나를 보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탓에 다시 천천히 갈 길을 갔다. 예상 적중이다. 30여분을 기다리는 동안 4마리의 무리를 보았고, 몸을 숨긴 바위 옆에서 바위자고새가 나타나 한참을 울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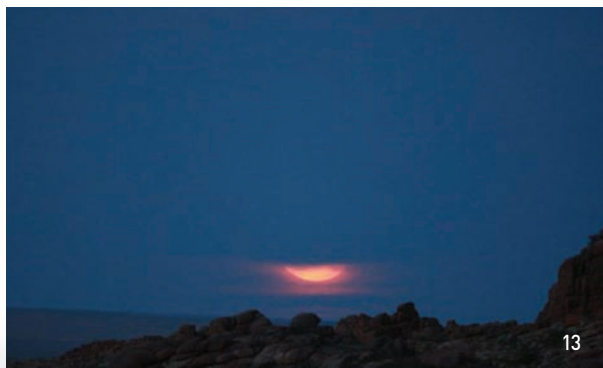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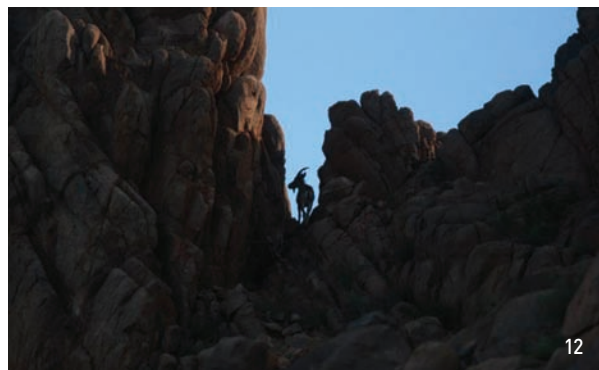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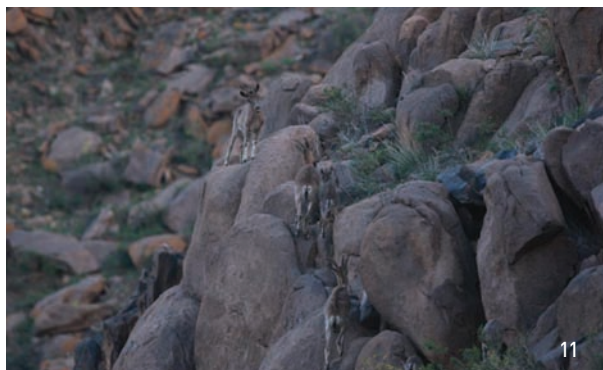


10 바위자고새

또 다시 20분이 지났을까? 산양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이어서 또 한 마리, 한 마리, 총 8마리의 산양 무리가 나타났다. 어미 4마리와 새끼 4마리였다. 거리는 불과 30m 이내. 새끼들은 풀을 뜯다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어미와 거리가 떨어지면 이내 쫓아가 또 장난치기를 반복했다. 나와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뛰는 심장소리가 워낙 큰 탓에 들킬 것만 같았다. 못 뛰게 손바닥으로 짹 눌러 볼까도 싶었지만 움직임을 줄 수 없었다. 녀석들이 능선을 오르기 시작하며 시선을 옆으로 두는 순간 찰각하고 셔터를 눌렀다. 어미가 내 방향으로 한참을 응시하더니 다시 풀을 뜯었다. 의심이 들어서인지 풀을 뜯고는 있었지만 조금씩 새끼들은 능선의 꼭대기 방향으로 유인해갔다. 그리고 천천히 이동해가며 고개 너머로 사라져 갔다. 그제야 숨을 쉬고 움직이는 생명체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22시가 넘었다. 산그늘은 이미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더 기다리고 싶었지만 빛이 없고 또한 일행이 걱정할 것 같아 돌아가기로 했다. 캠프로 돌아가니 아들이 멀리서 뛰어와 반겼다. 다들 많이 걱정했다고 한다. 몽골탐사 기간 최고의 음식, 씨레기국에 밥을 말아 먹고는 그 날 서로 서로의 자랑거리를 듣고, 보고 했다.

이날 밤하늘에 불이 났다. 그리고 난생처음 불 타 이글거리는 달을 보았다.



- 11 어미와 새끼 아이벡스산양
- 12 고개를 넘는 아이벡스산양
- 13 월출장면(달이 이글거린다)
- 14 월출 직전의 하늘



〈6월22일, 23일 : 몽골이지만 몽골 아닌 곳에서〉

22일, 이날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향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기상하자마자 침구의 온기가 식기도 전에 울란바토르를 향해 출발하였다. 12시간 남짓 긴 장거리 이동 후 저녁에 몽골 첫날 묵었던 숙소에서 짐을 풀었다. 그리고 몽골에 온 이후 처음으로 몸을 씻었다. 몸을 씻는 이 순간을 밤마다 간절히 기다렸건만 정작....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을 치르고 온 듯 다들 말이 적었다. 샤워를 위해 각자 방으로 들어 갈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광채나는 얼굴들이지만 마음도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다. 조용히 저녁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도 방에서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한국 내 여러 상황에 관한 기사들을 보았다. 23일, 오전 7시에 기상하여 숙소 주변을 둘러보고 귀국을 위해 다시 차량에 올랐다. 울란바토르를 향했다. 아파트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거리엔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걷는 사람도 있었다. 몽골이지만 몽골이 아닌 곳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24일, 새벽, 문득 잠을 깼다. 난 비행기 안 좁은 좌석에 앉아있었다.

너무나 짧은 꿈이었지만 실제처럼 너무나 생생하다. 다시 잠들어 못다한 꿈을 꾸어야겠다. 그리고 넓은 평원과 그 곳에 깃들여 살아가는 동물들을 다시금 보고 싶다.



15

15 꿈에서 보게 될 풍경